

초대형 IB 모험자본 투자 의무화… 부동산 쓸림 막는다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
발행어음·IMA 조달자금의 25%
中企 등 국내 모험자본에 투자하고
부동산 자산 한도 단계적 하향조정

정부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부동산 자산 운용 한도를 축소하는 한편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부여기로 했다. 초대형 투자은행(IB)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생산적인 금융 분야로 자금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종투사의 기업금융 역할을 강화하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는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모험자본 25% 의무 투자…IMA는
원금지급형으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종투사는 전체 운용 자산 중 발행어음과 IMA를 통해 조달한 금액의 25%를 국내 모험자본에 투

〈종투사 지정요건 개선내용〉

/금융위원회

	현 행	개 선
자기자본 요건	일회성으로 요건 충족 가능	최근 2개 사업연도 각 결산 기준 연속 충족 필요
사업계획, 사회적 신용, 대주주 요건	사업계획, 사회적 신용, 대주주 요건 無	사업계획*, 사회적 신용요건 신설 (8조원 종투사는 대주주 요건도 신설) *사업계획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외부평가 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추가
단계별 지정	종투사 각 단계별 업무영위 최소기간 無	종투사 각 단계별 최소 2년 이상 영위해야 다음단계 지정 가능

자해야 한다. 모험자본의 범위에는 중소·벤처기업, 벤처캐피탈(VC), 신기술 사업금융회사(신기사),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 A등급 이하 채무증권(대기업 계열사 제외), 중견기업, 상생결제, 벤처펀드, 하이일드 펀드, 소부장펀드, 모태펀드 투자가 포함된다. 의무 투자비율은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25%로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상향된다.

반면, 종투사가 운용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자산의 한도는 현재보다 크게 낮아진다. 2026년 15%, 2027년 10%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 기존 부동산

중심의 수익 구조에서 탈피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종투사의 IB 수익 중 절반 이상이 PF 채무보증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IMA의 상품 특성도 명확히 규정했다. 고객이 예약한 자산을 모아 운용해 수익을 배분하는 IMA는 ‘원금지급형 상품’임을 법령에 명시하고, 만기 1년 이상 자산으로 70% 이상을 구성해야 한다. 투자 중도해지 또는 신규 가입 시 적용되는 기준은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정해진다.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를 위한 규제도 강화된다. IMA 운용 시에는 자

전거래나 증권사 고유재산과의 거래가 제한되며, 5%의 시딩 투자(운용 초기에 증권사가 자기자금을 넣는 구조)와 수탁금 원본의 5% 이상 손실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된다. 운용 내역은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통지해야 하며, 손실충당금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IMA 자산은 NCR(순자본비율) 산정 시 50%만 반영된다.

◆종투사 진입요건 강화…단계별 운영
기간도 명문화

이번 개정안은 종투사의 지정요건도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인가 신청 시점에 자기자본 요건을 한 번 충족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최근 2개 사업연도 기준으로 연속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사회적 신용도, 대주주 적격성 등 질적 평가 항목도 신설된다.

또 자기자본 단계별로 최소 2년 이상 운영한 뒤에야 상위 자격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3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된 후 2년이 지나야 발행어음 사업(4조원 이상) 인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이후 또 2년이 지나야 IMA

사업(8조원 이상)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8조원 이상 종투사 지정 시에는 대주주 변경 인가 수준의 심사 요건도 새로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장은 외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밖에 증권업 관련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된다. 증권사 고유분 외화증권에 대한 집중예탁 의무를 폐지해 외화증권을 담보로 대차거래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파생결합증권·사채 조달자금과 고유자산 간 내부대여 한도는 2026년 20%, 2027년 10%로 제한된다. 대차거래 중개업 인가 시에는 매매체결 전문인력 1인, 전산전문인력 4인 등 전문 인력 요건도 신설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그간 부동산에 집중됐던 증권사의 자금 운용 방향을 혁신·벤처 등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증권사가 기업금융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보다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불닭흥행 지속… 삼양식품 주가 천장 뚫렸다

3분기 불닭볶음면 美·유럽 본격수출
목표주가 150만원→180만원 상향

삼양식품의 몸 값이 치솟고 있다. ‘불닭볶음면’ 한 그릇이 만든 글로벌 열풍에 힘입어, 이젠 ‘면미디어’ ‘불닭반도체’라는 별명까지 따라붙는다. 글로벌 공급 확대 기대감 속에 증권가도 실적 전망을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다.

15일 다올투자증권은 삼양식품의 내년 실적 호조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목표주가를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렸다. 이다연 연구원은 “삼양식품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5% 감소한 1272억원으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이라며 “5월 진행된 정규 급여 인상, 신규 브랜드 관련 마케팅비 및 관세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소폭 감익이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해당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기존 추정치(1355억원) 대비 6% 하향 조정된 수치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삼양식품 목표주가를 143만원에서 180만원으로, NH투자증권은 13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화투자증권은 170만원, DS투자증권은 160만원을 제시했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불닭볶음면이 진열되어 있다.

/뉴시스

다. 권우정 교보증권 연구원은 “2026년 예상 PER 20배를 적용했지만, 일본도 요수산처럼 25배까지 밸류에이션 상향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강은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불닭볶음면의 미국·유럽 수출이 3분기부터 본격화되며 실적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1분기엔 현지 물량 부족으로 매출이 제한됐지만, 하반기엔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류은애 KB증권 연구원은 “공급 능력이 당초 예상보다 20% 많은 연간 8억

3000만 식 수준”이라며 “미국 코스트코 등 유통처 확대와 제품 믹스 개선으로 이익률 상승 여지도 크다”고 말했다.

해외 투자자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최근 칼럼에서 삼양식품의 브랜드 가치를 80억달러(약 11조원)로 추산하며 “미국 젊은 세대가 색다른 맛을 좇으며 불닭 열풍이 확산 중”이라고 소개했다. 틱톡 내 관련 해시태그 수는 1년 전 대비 250% 급증했으며, 불닭 가르보나라의 미국 1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 20% 늘었다.

/허정윤기자

신용 따라 주관사 갈린다… 회사채 ‘온도차’

NH투자증권·삼성증권
우량 신용도 바탕 주관사 4곳 내외
CJ CGV, 1000억 회사채 공모에
주관사 10곳 선정 ‘방어적 전략’

회사채 시장을 통해 자금 조달에 나선 기업들이 주관사 선정에서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신용 등급이 높고 재무구조가 탄탄한 곳들은 자체 브랜드로 밀어 붙여 기관투자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반면 시장 신뢰가 약한 기업들은 여러 주관사를 앞세워 회사채 시장을 노크한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지난 14일 3년물 1500억원, 5년물 500억원 등 총 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앞두고 수요예측을 시행했으며, 그 결과 총 1조8400억원의 주문을 확보하며 모집액(2000억원)의 9배가 넘는 투자 수요를 끌어모았다. 회사 측은 최대 3000억원까지 증액 발행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NH투자증권의 회사채 대표주관사는 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SK증권 등이다. NH투자증권 회사채의 흥행 성공 배경으로는 ‘NH투자증권의 우

수한 신용등급(AA+)’과 ‘자기자본 규모’,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신뢰’ 등이 꼽힌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시장 반응이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딜은 인수단을 굳이 많이 구성할 필요가 없다”며 “미매각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다면, 내부 배정을 통해 수수료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도 17일 수요예측을 앞두고 있다. 3년물 1000억원, 5년물 500억원 등 총 15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이 예정됐으며, 대표주관사는 신한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등으로 4곳 내외로 구성됐다. 두 곳 모두 AA+ 등급이라는 우량 신용도를 바탕으로 시장 수요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셈이다.

반면 CJ CGV(A-)는 정반대 전략을 택했다. 1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공모(수요예측일 21일)에 10개 주관사를 선정했다. CJ CGV는 지난 6월 수요예측 실패한 채수생이다. 시장에서는 기관 불안을 반영한 ‘방어적 전략’으로 해석한다.

/허정윤 기자

유안타증권, 사내챗봇 ‘Y-BOT’ 구축

규정·매뉴얼·지침 등 필요정보 제공

유안타증권은 임직원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활용해 전사 업무를 보조하는 사내 챗봇 시스템인 AI 챗봇(Y-BOT)을 자체 구축했다고 15일 밝혔다.

와이봇(Y-BOT)은 사내 규정, 업무 매뉴얼, 지침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해 임직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챗봇이다. 일반적인 질의응답 기능을 넘어 문서양식 생성, 내용 분석 및 번역 등 범용적인 업무 지원 기능도 제공해 직원들의 실질적인 업무 편의성 향상에 기여한다. 또한 코드 분석 및 수

정, 테스트 등 시스템 개발을 지원해주는 코드 어시스트 기능도 포함돼 있어 사내 프로그래밍 업무를 효율화했다.

유안타증권은 지난해부터 자체인력으로 금융업무에 특화된 인공지능 언어 모델(sLLM)을 온프레미스(On-premise) 방식으로 사내 서버에 직접 구축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AI 활용 환경을 마련했다. 향후 인프라를 확장해 AI 활용 문화 정착 및 고도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 wkh@

예탁결제원, 상반기 채권·CD 314조 발행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상반기 채권과 양도성예금증서(CD) 전자등록발행 규모가 31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한 수준이다.

채권 발행 규모는 약 279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8% 늘었

다. CD 발행 규모는 약 34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4% 증가했다.

종류별 전자등록발행 규모를 보면 금융회사채가 31.8%, 특수채가 31%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일반회사채(15.3%), CD(11%), 유동화 SPC채(5.4%), 국민주택채(2.4%)순이었다.

/원관희 기자